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

성경말씀: 롬5:1-4

아이들이 부모에게 죄를 지으면 어떻게 부모와 잘 지낼까 고민하게 된다.

인생의 가장 큰 고민, 어떻게 하나님과 평화롭게 지내느냐?

지금부터 4000년 전의 욥, 모든 어려움이 발생하자 그의 친구들이 그를 비방함

여러 가지 질문이 욥기 안에 많음, 왜 이런 어려운 일이 발생하는가?

욥14:1-2, 9:2, 삼베를 입고 재에 앉아서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라?”

1515년 가을, 마르틴 루터라는 천주교 수도사가 신학교에서 강의하다가 롬1:16-17 말씀으로 변화를 받음. 하나님의 의, 믿음에서 믿음까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성경의 총 주제 중 하나는 칭의이다.

칭의란 무엇인가?

예수님만을 신뢰하는 죄인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은혜로운 행위

죄인을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하려고

1. 칭의는 법적 행위이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단 한 번 ★★★

칭의는 사람들을 의롭게 만들지 않는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다. ★★★

하나님이 하신다. 내 행위와 무관하다.

칭의는 모두에게 동일하다.

칭의 면에서 더 나은 성도는 없다. 형제/자매, 목사/성도 모두 동일한 하나님의 의를 갖는다.

칭의는 과정이 아니다.

2. 칭의는 변하지 않는다.

한번 의롭게 되면 그 칭의는 불변이다. 한번 해병이면 영원히 해병이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죄 문제는 영원토록 처리되었다.

a. 칭의와 중생은 다르다.

중생은 새로운 생명을 주고 칭의는 새로운 위치(신분)를 준다.

새로 태어난 아기는 생명을 얻고 동시에 법과 사람들 앞에서 신분을 얻는다.

칭의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세워 준다.

b. 용서와 칭의는 다르다.

용서받은 뒤에 또 다시 죄를 지으면 또 용서 받아야 한다.

c. 칭의는 사면과 다르다.

죄수가 사면을 받아도 여전히 죄수이다. 전과 기록이 남아 있다.

칭의는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고 새로운 신분을 준다. ★★★

즉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들 - 과거, 현재, 미래 - 을 잊으시고 죄인이었던 것조차 잊으신다.

용서도 사실이고 사면도 사실이지만 칭의는 이런 모든 것을 한 번에 영원토록 처리한다. ★★★

롤스로이스 자동차 예: 영국사람, 차가 고장 나서 영국에 연락함.

마귀가, 친구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소한다.

하나님이 파일을 연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죄과가 전혀 없다. 이것이 칭의이다. ★★★

칭의의 방법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가?

1. 그분 자신의 은혜로 하신다(롬3:24).

우리의 선행이나 업적으로 하지 않고 그분 자신의 은혜로 하신다.

값없이 거저 하신다(freely). ‘까닭 없이’(요15:25), 이유 없이 하신다.

일을 하지 않아도 거저 주시는 것이 은혜이다.

그러므로 칭의는 나와 상관없이 100%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경건치 아니한 자(ungodly)를 의롭게 하신다(롬4:5).

ungodly: 하나님을 닮지 않은 자

구약 시대에는 재판관들이 있었다. 그들의 임무: 악한 자를 정죄하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고 판단하는 일(신25:1)

하나님이 재판관들처럼 하면 누가 그분 앞에 설 수 있을까?

그렇게 하시는 이유: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롬3:23)

2. 믿음으로 하신다(롬3:28).

은혜는 항상 믿음과 동행한다.

율법은 항상 행위와 동행한다.

그런데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자는 하나도 없다(롬3:20).

율법은 우리의 악을 지적하며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그러면 어떤 믿음이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 ★★★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며 이로써 칭의를 얻는다.

3. 예수님의 피로 하신다(롬5:9).

누군가가 값을 치러야 한다.

우리 편에서는 거저 얻지만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을 희생하셨다. ★★★

“눈 감고 안 볼 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적극적으로 일하신다. 구원자를 보내신다. 성육신하신다.

“어떻게 내 죄들이 없어지고 의인이 되었는가?”

그리스도께서 내 죄들을 치웠기 때문이다. 온 세상의 죄들을 치웠기 때문이다. ★★★

칭의의 결과

1.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린다(5:1-2).

‘누리자’가 아니라 ‘누리는도다’이다.

과거에 믿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다.

생각이 행동이 말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본성을 입어야 한다.

그분의 본성은 의로움이다. 우리의 모든 의로움은 누더기이다(사64:6)

이것이 갈보리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일이 두렵지 않다. 아이들과 부모 관계

2. 하나님께 나아갈 권리를 얻는다(5:2)

은혜의 왕좌 앞에 나아간다.

기도할 수 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은혜를 누린다.

3.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갖는다(5:2).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영생의 소망이 없다.

모두가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났다(롬3:23).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상속자가 된다.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된다.

4. 역경과 환난이 오히려 약이 된다(롬5:3-4).

믿기 전과 후의 변화, 시련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

악한 환경 자체는 사람의 인품을 자라게 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악한 환경이 좋은 인품을 만든다.

환난이 우리를 갈고 닦아 하나님의 성품을 몸에 배게 한다.

결론

인생의 목표: 하나님과의 화평

당신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가? 어떻게 누리는가?

은혜로,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로 거저 누리는가? ★★★

목사라고 해서 다 되지 않는다. 1738년 5월 24일, 영국 성공회의 요한 웨슬레 목사

미국에 선교를 갔으나 구원과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이 생기지 않음

모라비안 교도들과의 만남

1738년 2월 요한은 찰스와 함께 피터 뵐러(Peter Bohler)라는 모라비안을 만났는데 바로 그가 웨슬리 형제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피터 뵐러는 찰스와 요한의 회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신앙상담자였다. 뵐러에게 요한은 자신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설교할 수 있겠느냐고 묻자 뵐러 목사는 믿음이 생길 때까지 설교하라고 권유하였다.

3월에서 4월에 걸쳐서 두 달 동안 그는 이 문제를 놓고 씨름했다.

요한 웨슬레의 올더스게이트 체험은 1738년 5월 24일(Aldersgate Street)에 일어났다.

요한은 마음에 내키지 않았지만 저녁에 런던의 올더스게이트 거리(Aldersgate street)에서 열리는 모라비안 교도들의 작은 집회에 참석하였다.

그곳에서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낭독하고 있었다.

“9시 15분 전 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신다는 설명을 하고 있을 때 나는 이상하게도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하였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분께서 내 죄들을, 심지어 나 자신까지 모두 거두어 가셨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생겼다.”

“현재와 과거의 상태 사이에 주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은혜 가운데뿐만 아니라 율법 아래에서 나는 힘을 다해서 투쟁했었다. 그러나 매 번이 아니라 이따금씩 그것을 정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늘 승리하는 사람이 되었다.”